해외 공동 마케팅으로 '윈-윈'

지방경제 중추 '클러스터'

〈3〉 '라이트테크'의 성공

18일 저녁 9시 광주시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202호 ㈜라이트테크.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110평 규모의 공장에서는 30여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12가지 색색의 코어를 한데 모아 광통신부품인 '팬-아웃'과 '광점퍼코드'를 만드는 이들은 호주로 보낼 납품 기일이 다가오면서 눈 코 뜰새 없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년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일손이 모자라 생산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양정윤 대표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내 광통신부품업체 ㈜라이트테크 직원들이 호주로 수출하는 '12코어 팬-아웃'을 생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회원간 노하우·정보 공유…5년간 수출 물량 확보

'팬아웃' 개발 해외시장 개척…추종로봇 상용화 목표

◇공동 수주, 공동 생산=라이트테크의 안정된 성장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통신부품미니클러스터의 역할이 컸다. 클러스터 회원들이 해외 공동 마케팅을 통해 수출 물량을 확보해 공동 생산하는 것이다.

광통신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포미㈜가 호주 MBN사에서 월 70만 개의 팬아웃코드와 슬리브 등 연 100억원 규모의 광통신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광점퍼코드는 라이트테크와 이상테크, 에프엔엔, 럭스콤 등이, 어뎁터는 링크라인와 럭스콤이, 스플리터는 피피아이와 오이솔루션이 공동 생산한다. 공동 마케팅을 통한 공동 수주, 공동 생산, 물량의 지속적 확보 등 상호 윈-윈하고 있다.

양정윤 라이트테크 사장은 "회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미니클러스터 활동의 최대 성과"라며 "무엇보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던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활동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제품 개발=2008년 라이트테크놀러지로 설립해 2009년 ㈜라이트테크로 법인 전환했다. 설립 당시부터 포미 등 클러스터 회원사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했다. 광점퍼코드와 광감쇠기 등을 포미에 납품하며 기술력을 다져 자체 개발한 '팬-아웃', '광점퍼코드' 등 통신소자를 양산, 연매출 20억원 가량을 올리고 있다.

라이트테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팬-아웃은 기존 제품보다 더 작고 정밀하다. 기존 팬-아웃의 높이가 7~7.5㎜인데 비해 이 회사 제품은 1㎜ 이상 낮은 6㎜로 설계됐다. 또 PC재질을 사용해 튀틀림이나 휨 등 변형을 없앴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팬-아웃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정밀도를 높여 품질경쟁력 확보했고, 20% 원가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회사 측은 자체 개발한 팬-아웃으로 매년 5억원 이상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유럽·동남아 지역에서도 팬-아웃 개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로봇으로 사업 다각화=라이트테크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독자 기술로 추종 로봇(Follower Robot)을 개발 중이다.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 가능한 보급형 로봇 개발이 목표다. 이미 모듈 개발은 마친 상태이며,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로봇은 지그비(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시스템과 지자기센서,초음파 센서 등으로 구성됐다. 위험요소가 적은 골프장, 물류센터, 애완동물용 등에 활용된다.

양 사장은 "골프카트 중 20%만 로봇으로 대체해도 연간 100억원대 시장 규모"라며 "이 로봇은 골프캐디로봇뿐만 아니라 간호사용 로봇 수레, 휠체어 응용, 농작업, 여행용가방 등 활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25개 사업장서 복수노조 설립

대우일렉 4개노조 활동…넉달만에 제도 정착

지난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넉달동안 광주·전남지역에는 25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돼 제도가 정착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25곳으로, 한 사업장에 2개 노조가 새로 생긴 곳이 있어 노조는 총 31개가 추가로 설립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2개 사업장은 3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돼 4개의 노조가 활동하게 됐으며, 세영운수 등 3개 사업장은 2개의 노조가 추가됐다.

금호고속은 기존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 하나였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임단협 합의에 반발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했다. 여기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한국노총 소속 제3노조가 설립됐다.

금호타이어, 영암 보워터코리아, 전남대 청소용역, 대한석탄공사 화순영업소 등 사업장에서도 노조가 1개씩 새로 생겼으며, 버스·택시 등 운수회사에서도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이 많았다.

전남지노위에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6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은 교섭대표노조 결정 관련 3건, 교섭단위분리 관련 2건, 교섭요구공고 관련 1건 등이다. 이 중 3건은 취하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97건이 접수됐다.

교섭요구공고가 51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교섭대표노조결정이 26건(26.8%), 교섭단위분리 17건(17.5%), 공정대표의무위반 3건(3.1%) 등의 순이었다. 이 중 94건(취하 포함)이 처리되고 3건은 진행 중이다.

김양현 전남지노위 위원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애초 우려했던 노-사, 노-노 갈등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삼호重 '녹색경영체제 인증' 획득

현대삼호중공업은 20일 조선업계 최초로 지식경제부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동안 녹색경영을 전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본사 내에 '녹색경영팀'을 설립, 온실가스·에너지 사용 목표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각 부서 녹색경영 전문가 선정 등 녹색경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선박 설계에서 제작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에너지·온실가스·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녹색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임직원 및 협력사에 녹색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추진 중이다.

녹색경영체제 인증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주축으로 ISO 50001(에너지 경영시스템 분야 국제표준), ISO 14064(온실가스 배출목록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통합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실천전략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 환경오염 최소화 등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한 업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연임

최원병(65)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8일 실시된 차기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을 맡아온 최 회장은 향후 4년간 계속해서 농협중앙회를 이끌게 됐다.

이날 최 회장은 전체 대의원 289명 가운데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투표에서 191표(66.3%)를 얻어 97표를 득표한 김병원(58) 나주 남평농협조합장을 누르고 재선출됐다. 최 회장은 내년 3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짓고 안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송기동기자 song@

기아車 박스형 경차 '레이' 이달말 출시 앞두고 사전 계약

기아자동차는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이달말 출시하는 박스형 경차 '레이(RAY)'의 사전계약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전장 3595㎜, 전폭 1595㎜, 전고 1700㎜의 균형 잡힌 차체를 갖춘 '레이'는 1000cc 엔진을 탑재해 경차의 경제성을 갖추고, 박스형의 디자인을 적용해 실내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다용도성을 부각시켰다.

기아차는 이 같은 소형차급의 다목적 차량을 '미니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레이'는 앞문과 뒷문 사이에 기둥이 없는 차체구조와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탁월한 개방감을 제공하며 편리한 승하차와 다양한 물품 적재가 가능하다.

또 5인 가족이 타도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했고, 다양한 시트 배치가 가능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인 것도 특징이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모델 자동변속기 기준 1240만~1495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풍력발전기 모니터링에 光센서 접목 도움"

산단공 '한·독 광산업-풍력 융합기술 교류협력 세미나'

광주 광(光) 기술과 독일의 풍력기술을 접목하면 풍력발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서 열린 '한·독 광산업-풍력 융합기술 교류협력 세미나'에서 해상풍력기술 및 블레이드(blade·날개)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한태영 박사는 "해상 풍력설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블레이드 파손 등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 박사는 '풍력 블레이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동향 및 기술'의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기준 전 세계의 풍력발전량은 전년보다 23.6% 늘어난 19만6630㎿에 달하며 아시아는 지난해 50%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최근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만큼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며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